

# 동 경 대 전

## 1. 다음 풀이가 맞으면 ○, 틀리면 × 를 하시오.

- 1) 「포덕문」은 한울님의 덕을 말씀하신 글이 아니다. ( )
- 2) 봄과 여름이 갈아들고 사시가 성하고 쇠하는 것도 한울님 조화의 자취다. ( )
- 3) 사람들은 옛부터 비와 이슬 등의 자연의 혜택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울님의 은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 )
- 4) 한울님은 형체는 없으면서도 자연한 이치와 기운으로 만물을 내시고 인간 사회를 이루어 놓는 능력을 가지셨다. ( )
- 5) 각자위심이란 천리를 순종하고 천명을 돌보며 동귀일체하는 것을 말한다. ( )
- 6) 한울님께서서는 대신사에게 영부를 받아 사람들을 질병에서 건지고, 주문을 받아 사람들이 한울님을 위하도록 가르치라고 하셨다. ( )
- 7) 영부의 모양을 태극(太極)이다, 궁궁(弓弓)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영부가 심령이 쉬지 않고 약동하는 기운을 형상화 시킨 것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다. ( )
- 8) 「포덕문」의 ‘여역장생(汝亦長生)’에서의 ‘장생’은 육신이 오래도록 사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장생을 말씀하신 것이다. ( )
- 9) 영부는 누구에게든지 질병을 치유하게 하는 효험이 있다. ( )
- 10) 「논학문」은 포덕 2 년에 지으신 것으로서 중심 내용은 동학과 서학의 이치상의 차이점을 논하는 글이다. ( )
- 11) ‘귀신이란 것이 나다’ 라고 하신 말씀은 마음의 근본은 한울님 마음이라 귀신이란 것도 한울님을 말하는 것이니 나와 귀신과 한울이 따로가 아니고 하나라는 말씀이다. ( )
- 12) 한울님의 도를 ‘동학’ 이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 고유의 전통 사상에서 연유하였기 때문이다. ( )
- 13) ‘修心(수심)’은 여러 가지에 물들고 가리워진 마음을 닦는다는 말이고, ‘守心(수심)’은 닦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킨다는 말이다. ( )
- 14) 강령주문의 뜻은 항상 안팎으로 한울님과 접하여 살고 있음을 알며 크게 기화를 원한다는 뜻이다. ( )

- 15) 한울님 지기의 조화작용이 나를 이루어 놓으시고 내 몸에 모셔져 계신 것을 ‘내유신령’ 이라고 하는 것이다. ( )
- 16) 한울님의 은덕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잠시도 잊지 않는 것을 ‘염념불망(念念不忘)’ 이라고 한다. ( )
- 17) 「수덕문」은 득도하신 직후 지으신 것으로서 덕을 닦는 이치를 말씀하신 것이다. ( )
- 18) 대신사께서 한울님으로부터 도를 받으신 시기는 경신년 4 월이다. ( )
- 19) 대신사께서 말씀하시는 ‘수심정기’ 는 옛적부터 성인들이 강조해 오던 덕목을 현실에 맞게 새롭게 고치신 것이다. ( )
- 20) 불사약(不死藥)이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선약(仙藥)이다. ( )
- 21) 입도식을 지내는 것은 한울님을 길이 모시겠다는 중한 맹세이다. ( )
- 22) 「수덕문」의 여덟 가지 수칙에는 물건을 아껴 쓰는 조항도 들어 있다. ( )
- 23) 「수덕문」에는 도를 열심히 닦으면, 사광처럼 총명해질 수 있다는 말씀도 있다. ( )
- 24) 재성재인(在誠在人)이라는 말은 믿고 지극한 정성으로 바르게 닦는 사람이어야 도성덕립이 된다는 말이다. ( )
- 25) ‘선신후성(先信後誠)’ 의 믿을 신자는 사람의 말이라는 뜻이니 말 가운데는 옳고 그름이 있으니 옳은 것은 취하고 그른 것은 버리어 한울이치에 합당한가 거듭 생각하여 한번 작정한 뒤에는 의심치 않고 닦아야 마침내 그 정성을 이룰 수 있다. ( )
- 26) 「불연기연」은 포덕 4 년 11 월, 대신사께서 마지막으로 지으신 경전으로 이치를 헤아리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다. ( )
- 27) ‘불연(不然)’ 과 ‘기연(其然)’ 의 차이는 그것이 자연적이냐, 인위적이냐 하는 것이다. ( )
- 28) 인류의 최초 시조라고 하는 천황씨가 사람이 되고 임금이 된 이치는 알기 쉬운 이치이다. ( )
- 29) 밭가는 소가 말을 알아듣는 것도 ‘기연(其然)’ 이라고 하셨다. ( )
- 30) 불연은 조물자에게 부쳐 봐도 알 수 없는 일이다. ( )

## 2. 다음 물음에 가장 적합한 답을 골라 ( )안에 번호를 쓰시오.

- 1) 「포덕문」에서 언급하지 않으신 내용은? ( )  
가) 주문 21자의 뜻

- 나) 대신사님과 한울님과의 문답  
 다) 서학의 동진(東進)에 대한 우려  
 라) 불순도덕하는 사람들에 대한 개탄
- 2) 한울님의 덕(德)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 )  
 가) 내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일  
 나) 인간의 모든 일에 간섭하시어 감응하시는 일  
 다)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일  
 라)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재앙을 내리는 일
- 3) 「포덕문」 중에서 대신사께서는 ‘근세의 사람들(又此挽近以來 一世之人)’의 마음이 어떠하다고 말씀하셨는가? ( )  
 가) 모두 천리(天理)를 따라서 사는 마음이다.  
 나) 하늘의 이치를 잘 살피며 산다.  
 다) 모든 면에서 힘들게 산다.  
 라) 각자위심(各自爲心)으로 산다.
- 4) 「포덕문」의 ‘유하선어(有何仙語)’에서 선어(仙語)란? ( )  
 가) 한울님(상제님)의 말씀  
 나) 선도를 닦은 신선의 말씀  
 다) 지극히 착한 사람의 말씀  
 라)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말씀
- 5) 한울님께서 대신사께 준 것은 무엇인가? ( )  
 가) 영부와 주문                      나) 힘과 권력  
 다) 부와 재주                        라) 능력과 권세
- 6) 한울님께서 대신사님께 주문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 ( )  
 가) 나(한울님)를 위하도록 가르치라 하셨다.  
 나) 제 몸만을 위하여 빌라고 하셨다.  
 다) 도술을 가르치라 하셨다.  
 라) 이치만을 궁리하라고 하셨다.
- 7) 영부가 병을 낫게 하는 이유는? ( )  
 가) 독특한 약 성분의 작용으로  
 나) 받는 사람의 정성과 공경에 따른 한울님의 약동하는 기운작용으로

- 다) 영부를 태운 재의 성분작용으로
- 라) 자연의 이치와 기운 작용으로

8) 영부를 쓸 때에는 어떻게 해야 병이 낫는다고 하셨는가? ( )

- 가) 수도원에서 먹어야 한다.
- 나) 반드시 하루 세 번씩 정성껏 먹는다.
- 다) 지극정성으로 한울님을 위하고 도덕에 순종해야 한다.
- 라) 도력이 높은 사람이 그려낸 영부라야 한다.

9) 다음에서 대신사님의 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닌 것은? ( )

- 가) 동학
- 나) 무극대도
- 다) 천지부모교
- 라) 무궁무궁지도

10) 한울님께서 대신사에게 명하신 말씀이 아닌 것은? ( )

- 가) 포덕(布德)하라 - 덕을 퍼라.
- 나) 장생(長生)하라 - 오래 살아라.
- 다) 수이연지(修而煉之)하라 - 닦고 단련하라.
- 라) 정기법(正其法)하라 - 그 법을 바르게 하라.

11) ‘동학(東學)’ 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 )

- 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도이다.
- 나) 도는 천도이지만 학문으로 말하면 동학이다.
- 다) 우리나라에서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퍼기 시작했다.
- 라) 한울님을 믿는 입장에서는 서학과 같지만 이치는 다르다.

12) ‘주문(呪文)’ 이란? ( )

- 가) 지극히 한울님을 위하는 글
- 나) 도술을 부릴 수 있는 글
- 다) 만사여의하기를 바라는 글
- 라) 삶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글

13) 다음에서 강령주문은 ? ( )

- 가) 도기장존불사입
- 나) 지기금지 원위대강

- 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 라) 위천주 고아정 영세불망 만사의

14) 대신사께서 득도 후 강화의 가르침으로 주문을 지으셨는데 이중 아닌 것은?  
( )

- 가) 강령주문                      나) 신사주문
- 다) 초학주문                      라) 선생주문

15) 주문 21 자의 구성상 포함되지 않은 의미는? ( )

- 가) 강령을 원하는 법
- 나) 평생 동안 잊지 않겠다는 뜻
- 다) 한울님을 위하는 뜻
- 라) 다만 제 몸만을 위하여 빌겠다는 뜻

16) 주문의 ‘시천주(侍天主)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 )

- 가) 내 몸에 한울님이 모셔져 계심(내유신령)
- 나) 한울님 기화작용으로 살아감(외유기화)
- 다)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것대로 마음대로 행동함(각지불이)
- 라) 한울님을 지극히 공경하여 부모님 섬기듯이  
    섬김(칭기존이여부모동사자)

17) 지기와 지극히 화하려고 할 때 맞지 않는 것은? ( )

- 가) 경전만 많이 외우면 된다.
- 나) 지극한 정성을 드린다.
- 다) 주문을 많이 외워야 한다.
- 라) 밝은 한울님의 덕을 생각하며 염념불망해야 된다.

18) 사람의 일생을 통하여 성쇠의 이치는 다음중의 어느 것과 관계있는가? ( )

- 가) 기운의 바름과 마음이 한울님과 합해지는 것
- 나) 문벌과 지벌
- 다) 조상의 여경
- 라) 나라의 부강

19) ‘한울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의 자세는? ( )

- 가) 한울님은 무형의 이치 기운으로서 내 몸 밖에 계시니 지극한 정성으로  
    공경하여 섬긴다.

나) 한울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길흉을 결정하시므로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지극히 섬긴다.

다) 내 마음이 곧 한울님이므로, 나 역시 한울님처럼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다.

라) 한울님이 내유신령과 외유기화로 계시므로 한울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부모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과 같이 한다.

20) 지기(至氣, 또는 氣)의 뜻에 해당하지 않는 구절은? ( )

가) 합기덕정기심야(合其德定其心也)

나) 시역 혼원지일기야(是亦 渾元之一氣也)

다) 여형이난상 여문이난견(如形而難狀 如聞而難見)

라) 허령창창 무사불섭 무사불명(虛靈蒼蒼 無事不涉 無事不命)

21) 대신사께서 용담으로 돌아오신 후 이름을 고치신 뜻은? ( )

가) 세상 사람들의 지목을 피하기 위해서

나) 이름이 좋아야 잘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다) 부르기에 보다 좋은 이름으로 고치겠다는 뜻에서

라) 기필코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 창생을 구하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하는 뜻에서

22) 불사약이란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가? ( )

가) 삼칠 자 주문

나) 한울님께서 주신 영부

다) 불로자득할 수 있는 약

라) 삼신산에 있는 불노초(不老草)

23) 대신사의 부친과 관계없는 사항은? ( )

가) 경상도 일대의 이름난 선비

나) 신라말 문장가인 최치원의 후손

다) 산림에 묻혀 처사처럼 지내신 분

라) 대신사께서 28 세 때 돌아가신 분

24) 수심(修心)이란 무엇인가? ( )

가) 도성덕립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나)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다) 천심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 라) 습관 된 마음을 닦아서 본래의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 25) 수덕문에 나오는 여덟 가지 수칙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은? ( )
- 가) 시일 날 시일 예식에 참석하는 것
  - 나) 누워서 큰 소리로 주문을 외우지 말 것
  - 다) 한 번 입교식을 하면 한울님을 길이 모시는 것
  - 라) 길 다니면서 먹거나 뒷짐을 지고 다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 26) 수도과정 중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 )
- 가) 허물을 뉘우치게 된다, 겸손해진다.
  - 나) 총명해진다, 숨씨가 뛰어나게 된다.
  - 다) 용모가 바뀐다, 병이 낫는다.
  - 라) 받은 음사를 믿게 된다.
- 27) 도성덕립(道成德立)이 되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하셨는가? ( )
- 가) 경전만 공부하는데 있다.
  - 나) 수련만 하는데 있다.
  - 다) 바르게 믿고 지극한 정성으로 바르게 닦는 사람에게 있다.
  - 라) 기적이 나타나는데 있다.
- 28) ‘신(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 가) 마음으로 믿는 것
  - 나) 기적이 있을 것을 굳게 믿는 마음
  - 다) 옳은 말을 취하고 그른 말은 버리는 것
  - 라) 한 번 정한 마음을 끝까지 변치 않는 것
- 29) 「불연기연」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가? ( )
- 가) 도 닦는 방법
  - 나) 도성덕립이 되는 방법
  - 다)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는 방법
  - 라) 세상의 모든 이치를 헤아리는 방법
- 30) 「불연기연」에서 말씀하신 ‘불연’의 탐구 방법은? ( )
- 가) 수련을 열심히 하는 것
  - 나) 조물자에 붙여 보는 것
  - 다) 경전을 구구자자 살피는 일

라) 사물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

31) ‘세간의 못사람과 같이 돌아가지 않으리라.(世間衆人不同歸)’ 라는 대신사의 입춘시(立春詩)의 구절 중 ‘세간중인(世間衆人)’ 이 뜻하고 있는 가장 적합한 풀이는? ( )

- 가) 후천의 운을 맞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 나) 대신사와 뜻을 같이 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 다) 각자위심(各自爲心)에 물든 세상의 사람들
- 라) 대신사께서 포덕 한 세상의 사람들

32) 마음공부를 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 )

- 가) 이전의 허물을 참회한다.
- 나) 일체의 선에 따르기를 원한다.
- 다) 길이 모셔 잊지 않는다.
- 라) 만권시서를 읽는다.

33) 다음 중 『동경대전』에 나오는 한울님 말씀이 아닌 것은? ( )

- 가)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 나) 내 또한 공이 없으므로 너를 세상에 내어 사람에게 이 법을 가르치게 하니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 다) 불연은 알지 못하므로 불연을 말하지 못하고, 기연은 알 수 있으므로 이에 기연을 믿는 것이다.
- 라) 나에게 영부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요 그 형상은 태극이요 또 형상은 궁궁이니 나의 영부를 받아 사람을 질병에서 건지라.

### 3. 다음 빈 칸에 맞는 글자를 넣으시오.

1) 吾有□□하니 其名은 □□이요 其形은 □□이요 又形은 □□이니

2) 受我此符하여 濟人□□하고 受我□□하여 敎人爲我則 汝亦長生하여 布德天下矣리라.

3) 誠之又誠하여 至爲□□者 每每有中하고 不順□□者 一一無驗하니

- 4) 曰 吾心卽□□也라 人何知之리오 知天地而無知□□하니 鬼神者도 吾也니라.
- 5) 守其心□□□하고 率其性□□□하면 化出於自然之中也요
- 6) 今至者는 於斯□□하여 知其□□者也요
- 7) 願爲者는 □□之意也요 大降者는 □□之願也니라.
- 8) 侍者는 內有□□하고 外有□□하여 一世之人이 各知 □□者也요
- 9) 故로 明明其德하여 念念□□則 至化至氣 至於□□이니라.
- 10) 乘其運 □□□□은 庚申之□□이라.
- 11) 雖然이나 □□□□은 在誠□□이라.
- 12) □與□兮 其則不遠이라 人言以成하니 先□後□하라.
- 13) 付之於□□□則 其然□□ 又□□之理哉인저.

1. 다음 풀이가 맞으면 ○, 틀리면 × 를 하시오.

**포덕문(布德文)**

- 1)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어 편안히 잘 살도록 해 주는 것을 덕이라고 한다. 포덕문은 모든 것이 한울님 덕 아님이 없고 내 몸과 백천만물이 화해 나온 것(天生萬民, 萬物化生)과 성인을 이어 내시어 새로운 도를 내려 주신(道又生) 한울님의 덕을 말씀하신 것이다. (×)
- 2) 우주의 생성과 운행, 삼라만상의 섭리 등 세상이 되어지는 것은 한울님이 덕을 베푸는 현상이다. 봄과 여름이 갈아들고 사시가 성하고 쇠하는 차례와 순서가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 것이 한울님의 조화로 되어지는 것이며 (○)
- 3) 비가 오고 이슬이 내리는 것도 한울님께서 하시는 것이므로 한울님의 덕택으로 살고 있으면서 원시 시대 사람들은 한울님의 덕택을 알지 못하였다. (×)
- 4) 한울님은 형체가 없어 보이지 않지만 이치 기운으로 봄과 여름을 갈아들게 하고 만물을 내고 인간 사회를 이루어 놓으시고, 인간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성인을 내어 경천명 순천리하여 문명사회를 이루어 살게 하였다. (○)
- 5) 이 근래에 오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게 됨으로써 도덕을 순종치 않고 천명을 돌아보지 않고 살게 되었다. (×)
- 6) 한울님은 대신사님을 내서 사람들을 가르쳐서 지상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뜻으로 대신사에게 강화지교로 영부를 받아 사람들을 질병에서 건져주고 주문을 받아 사람들이 한울님을 위하도록 가르치라고 하셨다.  
 “나에게 영부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요 그 형상은 태극이요 또 형상은 궁궁이니, 나의 영부를 받아 사람을 질병에서 건지고 나의 주문을 받아 사람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하면 너도 또한 장생하여 덕을 천하에 퍼리라.(吾有靈符하니 其名은 仙藥이요 其形은 太極이요 又形은 弓弓이니 受我此符하여 濟人疾病하고 受我呪文하여 教人爲我則 汝亦長生하여 布德天下矣리라)” 라고 하신 것이다. (○)
- 7) 영부의 모양이 태극과 같고 또 궁궁과 같다는 말씀은, 영부가 심령이 쉬지 않고 약동하는 기운을 형상으로 나타낸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기운이란 곧 마음이니 한울기운으로 습관 된 기운을 다스리고(以氣治氣) 한울마음으로 습관 된 마음을 다스리는(以心治心) 것이다. (○)
- 8) 성령으로 장생하여 포덕천하를 하게 된다고 하셨다. (○)

9) 영부는 약 성분으로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한울님(心靈)의 작용으로 병이 낫는 것이므로 “정성드리고 또 정성을 드리어 지극히 한울님을 위하는 사람은 매번 들어맞고 도덕을 순종치 않는 사람은 하나도 효험이 없었으니(誠之又誠하여 至爲天主者는 每每有中하고 不順道德者는 一一無驗)” 고 하여 정성 드리고 또 정성 드리어 지극히 한울님을 위하고 도덕에 순종해야 효험이 있다고 하셨다. (×)

### 논학문(論學文)

10) 논학문은 포덕 2 년에 지으신 것으로서 천도의 주요(主要)한 학리(學理)를 말씀하신 것이다. (×)

11)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니라. 사람이 어찌 이를 알리오. 천지는 알아도 귀신은 모르니 귀신이라는 것도 나니라.(吾心則 汝心也라 人何知之리오 知天地而無知鬼神하니 鬼神者도 吾也니라)” 라고 하여 마음의 근본은 한울님 마음이라 귀신이란 것도 한울님을 말하는 것이니 나와 귀신과 한울이 따로가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밝혀 주셨다. (○)

12) 한울님으로부터 받은 무궁무궁(無窮無窮)의 도가 곧 천도이며, 이제 너에게 무궁무궁의 도를 내려 주었으니 네가 먼저 마음을 닦고 단련하여 한울님 마음과 하나가 되도록 하라고 하셨으며, 천도를 동방인 우리나라에서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부터 퍼기 시작했으므로 동학이라고 한다는 것을 밝히셨다. (×)

13)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고 한울님 성품을 거느리고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한 가운데 화해나는 것이요(守其心 正其氣 率其性 受其敎하면 化出於自然之中也)” 라고 하시어 우리 도는 여러 가지에 가리워지고 물든 마음을 닦고(修心), 닦은 그 마음을 지키고(守心) 기운으로 몸을 움직여 모든 일을 바르게 하고 천성을 따라 천성대로 행하고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대로 행하면 자연한 가운데 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

14) 우리 도에서는 주문을 외우면서 수련을 하는데 주문은 곧 한울님을 지극히 위하는 글로서 강령주문과 불망지사(不忘之詞)인 본주문이 있으니, “至者는 極焉之爲至요 ~ 今至者 는 於斯入道하여 知其氣接者也요 願爲者는 請祝之意也요 大降者는 氣化之願也니라” 라고 하시어 강령주문은 항상 안팎에서 한울님과 접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크게 기화를 원하여 비는 주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

15) “侍 者는 內有神靈하고 外有氣化하여 一世之人이 各知不移者也라” 고 하여 한울님은 하나의 무형의 이치 기운으로서 이 우주 안에 꼭 차 있으면서 외유기화(外有氣化)로서 내 몸을 이루어 놓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 등을 제공해 주시고, 내 몸에 계시면서 간접 명령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게 해 주시는 기운을 “내유신령(內有神靈)” 이라고 하셨다. (○)

16) 한울님과 떨어져 있지 않고 항상 내안에 모시고 있으면서 부모님 섬기는 것과 같이 잊지 않는 것을 염념불망(念念不忘)이라고 하셨다. (○)

### 수덕문(修德文)

17) 수덕문은 포덕 3 년인 임술년에 지으신 것으로서 덕을 닦는 이치를 말씀하신 글이다. (×)

18) “乘其運道受之節은 庚申之四月이라” 고 하시어 기미년 10 월 용담으로 돌아오셔서 자 호 이름을 고쳐 지으시고 “기필코 새로운 진리를 깨닫겠다” 는 비장한 결심을 하시고 지극한 정성을 드리신 결과 경신년 사월에 운에 의해서 도를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

19) “仁義禮智는 先聖之所教요 修心正氣는 惟我之更定이라” 修心正氣, 즉 여러 가지에 물들고 가리워진 마음을 닦아(修心) 천심을 다시 회복하여 항상 천심을 지키며(守心) 일용행사 모든 일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덕 닦는 방법을 고쳐 다시 정하셨다. (×)

20) 한울님으로부터 받으신 불사약인 영부와 3,7 자 주문을 외우면서 포덕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

21) 덕을 닦아 나아가는데 있어서 여덟 가지 수칙을 정해 놓고 도를 닦도록 가르치니, “한번 입도식을 지내는 것은 한울님을 길이 모시겠다는 중한 맹세” 라는 것과 (○)

22) 모든 의심을 깨쳐버리는 것, 의관을 바로 갖추는 것, 길에서 먹거나 뒷짐 지지 말 것, 한 가지 네발짐승의 나쁜 고기를 먹지 말 것, 찬물에 갑자기 앉지 말 것, 유부녀를 막지 말 것, 누워서 큰 소리로 주문 외우지 말 것 등의 여덟 가지 수칙을 일러 주셨다. (×)

23) 도를 닦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섯 가지 기적을 기록해 놓은 것과 같이 많은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정성이 지극한 아이는 사광의 총명도 부러워하지 않게 된다.” 고 말씀하셨다. (○)

24) 그러나 “雖然이나 道成德立은 在誠在人이라” 고 하여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도성덕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신사님 가르침을 믿고 아는데 그치지 않고 정성 드려 바르게 닦는 사람이 도성덕립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

25) 바르게 닦는 법으로 “誠與 信兮 其則不遠이라 人言而成하니 先信後誠하라” 고 하셨다. ‘선신후성(先信後誠)’ 의 믿을 신자는 사람의 말이라는 뜻이니 말 가운데는 옳고 그름이 있으니 옳은 것은 취하고 그른 것은 버리어 한울이치에 합당 한가 거듭 생각하여 한번 작정한 뒤에는 의심치 않고 닦아야 마침내 그 정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

### 불연기연(不然其然)

- 26) 不然其然(불연기연)은 포덕 4년 11월에 용담에서 맨 나중에 지으신 것으로서 이치를 헤아리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다. (○)
- 27) 이 세상에는 만물들이 각각 형체를 이루고 있는데 어떤 물건이든지 현재의 생겨져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본다면 모두 다 알 수 있으니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기연(其然)” 이라고 했으며, 그 물건이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생겨져 나왔느냐? 그 근본을 캐어 들어가 보면 모두가 다 알 수 없으니, 이와 같이 알 수 없는 것들을 “불연(不然)” 이라고 말씀하셨다. (×)
- 28) 사람은 부모가 낳았으니 이 세상에 부모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부모의 부모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최초의 시조(천황씨)는 누가 낳았겠는가? 이처럼 나타난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것도 그 근본을 캐어 들어가 본다면 그 근본은 모두 다 알 수 없는 것이니, (×)
- 29) 발가는 소가 마음이 있는 것 같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을 비롯해서 알 수 없는 것(不然) 몇 가지를 예로 들어 놓으셨다. (×)
- 30) 아무 것도 생겨지기 전 이 우주에는 아무 것도 없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져 나왔을까? 거기에는 필경 최초의 물건들을 만들어 놓은 조물자가 있어서 만들었을 것이니, “付之於造物者則 其然其然 又其然之理哉인저” 라고 하시어 조물자가 있어서 모든 것을 조물자가 한 것이라고 본다면 의심이 풀려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이치라고 하여 세상의 모든 이치를 헤아리는 법을 말씀하신 것이다. (×)

### 2. 다음 물음에 가장 적합한 답을 골라 ( )안에 번호를 쓰시오.

- 1) 가 『천도교경전』 「논학문」 33 ~ 35 쪽에 주문의 뜻이 해석 되어져 있다.
- 2) 라 \* 우주의 생성과 운행, 삼라만상의 섭리, 천생만민 하여 안팎으로 모든 일을 간섭해 주시는 것 등이 한울님의 덕이다.
- 3) 라 4) 가 5) 가 『천도교경전』 「포덕문」 17 쪽, 18 쪽, 19 쪽
- 6) 가 7) 나 8) 다 『천도교경전』 「포덕문」 19 ~ 20 쪽, 20 ~ 21 쪽
- 9) 다 『천도교경전』 「논학문」 28 쪽 ‘급여무궁무궁지도(及汝無窮無窮之道)’  
「논학문」 32 쪽 ‘도수천도 학즉동학(道雖天道 學則東學)’  
「논학문」 40 쪽 ‘도지무극지리(道之無極之理)’
- 10) 나 『천도교경전』 「논학문」 28 쪽 ‘닭고 단련하여 그 법을 바르게 하여 덕을 펴면 너로 하여금 장생하여 천하에 빛나게 하리라.’
- 11) 가 12) 가 13) 나 『천도교경전』 「논학문」 30 쪽, 33 쪽
- 14) 나 \* 종령 104 호에 의거, 포덕 54년 12월 18일부터 다음해 3월 26일까지 시행한 105일 특별기도 기간에는 매주 목요일 오후 9시에 ‘신사영기아심정

무궁무궁조화지(神師靈氣我心定 無窮無窮造化知)’ 라는 주문을 55 회 송주토록 하였다. 그 후 종령 112 호에 의해서 포덕 55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 105 일 특별기도시에는 ‘신사영기아심정 무궁조화금일지(神師靈氣我心定 無窮造化今日至)’ 라는 신사주문을 매일 오후 9 시 105 회씩 송주케 하였다. 포덕 56 년 11 월부터는 기념식은 물론 매 시일마다 천덕송을 부른 후 이 신사주문을 일곱 번씩 송주하도록 하였다. 『천도교약사』 150 쪽

- 15) 라 16) 다 17) 가 『천도교경전』 「논학문」 29 쪽, 33 ~ 35 쪽
- 18) 가 『천도교경전』 「논학문」 36 쪽
- 19) 라 『천도교경전』 「논학문」 34 쪽, 「도결」 255 쪽
- 20) 가 『천도교경전』 「논학문」 33 ~ 34 쪽
- 21) 라 \* 기필코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 창생을 구하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하는 뜻에서 이름을 제선(濟宣)에서 제우(濟愚)로 바꾸었다.
- 22) 나 『천도교경전』 「수덕문」 50 쪽
- 23) 라 \* 대신사님 부친 근암공은 대신사 17 세 때에 환원하셨다. 『천도교약사』 25 쪽
- 24) 라 1-13) 참조 25) 가 1-22) 참조
- 26) 라 『천도교경전』 「수덕문」 53 쪽 27) 다 1-24) 참조
- 28) 나 『천도교경전』 「수덕문」 55 ~ 56 쪽
- 29) 라 1-30) 참조 30) 나 『천도교경전』 「불연기연」 64 쪽
- 31) 다 『천도교경전』 「입춘시」 71 쪽
- 32) 라 『천도교경전』 「참회문」 67 ~ 68 쪽
- 33) 다 『천도교경전』 「포덕문」 18 ~ 20 쪽, 「불연기연」 60 ~ 61 쪽

### 3. 다음 빈 칸에 맞는 글자를 넣으시오.

- 1) 靈符(영부), 仙藥(선약), 太極(태극), 弓弓(궁궁) 『천도교경전』 「포덕문」 19 쪽
- 2) 疾病(질병), 呪文(주문) 『천도교경전』 「포덕문」 19 쪽
- 3) 天主(천주), 道德(도덕) 『천도교경전』 「포덕문」 20 쪽
- 4) 汝心(여심), 鬼神(귀신) 『천도교경전』 「논학문」 28 쪽
- 5) 正其氣(정기기), 受其教(수기교) 『천도교경전』 「논학문」 30 쪽
- 6) 入道(입도), 氣接(기접) 『천도교경전』 「논학문」 34 쪽
- 7) 請祝(청축), 氣化(기화) 『천도교경전』 「논학문」 34 쪽
- 8) 神靈(신령), 氣化(기화), 不移(불이) 『천도교경전』 「논학문」 34 쪽
- 9) 不忘(불망), 至聖(지성) 『천도교경전』 「논학문」 35 쪽
- 10) 道受之節(도수지절), 四月(사월) 『천도교경전』 「수덕문」 48 쪽
- 11) 道成德立(도성덕립), 在人(재인) 『천도교경전』 「수덕문」 54 쪽

- 12) 誠(성), 信(신), 信(신), 誠(성) 『천도교경전』 「수덕문」 56 쪽
- 13) 造物者(조물자), 其然(기연), 其然(기연) 『천도교경전』 「불연기연」 64 쪽